

『삼국유사』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서사적 특징 : 낙산 관음성지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of Naksan-idaeseong Gwaneum Jeongchwi Josin of Samguk-yusa:
Examining the Symbolic Meaning of Naksan

저자 (Authors)	배금란 Bae, Geum-Ran
출처 (Source)	불교학보 91 , 2020.6, 77-99 (23 pages) BUL GYO HAK BO 91 , 2020.6, 77-99 (23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62767
APA Style	배금란 (2020). 『삼국유사』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서사적 특징 : 낙산 관음성지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91, 77-9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3/16 14:26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서사적 특징 : 낙산 관음성지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배금란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이 땅 본연의 관음보살 존격(尊格)의 정립
- III. 「입법계품」 관음영장(觀音靈場)의 공간적 형상화
- IV. 불국토 관념의 상승적 확장
- V. 관음보살 성현(聖顯)의 현존성
- VI. 나가는 말

<한글요약>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조는 관음보살 진신의 친견이라고 하는 의상의 종교체험을 기반으로 이 땅 본연의 신성으로서 관음보살의 존격을 정립하고 신라국토 내에 존재하는 관음 상주성지(常住聖地)의 기원을 제시하는 ‘역사적 신화’이다. 의상의 자내증(自內證)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보타락가산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는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재동자의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다. 즉 「입법계품」에 묘사된 관음영장(觀音靈場)을 동해의 해변굴에 투사하는 서사 구조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범일의 기사에도 「입법계품」의 보타락가산으로 비친해 온 정취보살의 모티프가 원용되고 있다. 관음 상주 도량으로서 동해 낙산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낙산 관음 상주처의 건립은 사상적으로 의상이 선양했던 화엄법계관(華嚴法界觀)이 바탕이 되고 있다. 세속 공간인 신라국토 내의 해변굴은 관음보살의 주처로서, 진리(理)와 현상(事)이 결핍 없이 서로를 함용(含容)하는 진성(眞性) 연기의 연화장세계로 드러나고 있다. 또 지형학적으로 동북방의 변지(邊地)를 불보살이 상주하는 정토(淨土)로 상정함으로써, 신라 중고기에 수미산 우주관을 기반으로 성립되었던 왕경 중심의 불국토관을 극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상이 화엄 전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동북면의 주변성은 또 다른 차원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의상, 원효, 범일, 조신 등의 서사를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는 관음보살의 진신(眞身)과 화신(化身)의 성현(聖顯) 관념이다. 의상과 범일의 기사는 진신 성현 감득(感得)의 모티프를 통해 이 땅 본연의 신성 관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원효와 조신의 이야기는 화신 성현의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이 땅 민중들의 삶 속에 화광동진하는 구제자로서 관음보살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은 당대까지 전승되어온 자료들을 종합 검토하여 관음보살 성지로서 동해 낙산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살았던 고려 당대의 피폐한 현실 속에서 이 땅의 민중들과 소통·감응하는 관음보살 구제 활동의 역동성과 현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어 : 『삼국유사』, 관음보살, 의상, 원효, 범일, 화엄법계관, 정토

I. 들어가는 말

현 강원도 양양에 소재한 낙산사는 한국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관음성지이다. 신라 시대에 관음보살 진신의 상주처로 정립된 이후 오늘날까지도 불교 신앙의 영역에서 관음보살 성현 성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불보살과 관련된 성지나 사탑, 불보살상 등의 조성은 불교가 이 땅 민중의 구원재(救援財)로 작동하면서 내재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불보살의 가피를 증득하거나 성현(聖顯)¹⁾을 감득(感得)하는 체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성스러운 실재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교 신앙의 상징체계들이 이 땅 곳곳에 가장 활발하게 구축되었던 시기는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라고 할 것이다.

『삼국유사』의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이하 「낙산 이대성」) 조에 의하면 낙산사의 건립 역시 신라 중대 의상 법사의 관음보살 진신 친견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신라 동북방 변지의 해안가가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전변하게 되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신앙 서사들이 창출 전승되면서 수세기에 걸쳐 관음보살 성현 성지로서의 상징성을 담보해왔다. 찬자인 일연은 당대까지 전승되어 온 설화 및 관련 기록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종합 재구성하여 하나의 서사로 완성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려 하대의 불교 지도자이자 사상가로서 일연이 견지했던 관음신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인식과 지향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동해 ‘낙산’²⁾ 관음성지의 종교 상징적 의미를 「낙산 이대성」

1) 종교학자 엘리아데는 종교를 규정하는 고유한 기반을 오토의 견해(R. Otto, *The Idea of the Holy*, trans. by J. W. Harvey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김희성 역, 『성스러움의 의미』(서울: 분도출판사, 1995))를 수용하여 ‘성(聖), 또는 성스러움의 추구’로 파악했다. 종교적 인간(homo religiosus)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인 ‘성’은 초합리적 영역의 이념(ideal)으로서, 합리적 사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적 실재와는 ‘전혀 다른 그 무엇(das ganz andere)’이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엘리아데는 성(hiero; the sacred)이 세속의 사물이나 사람을 통해 현현(顯現, phainin: to manifest)하는 현상을 ‘성현(hierophany)’으로 정의했다.(M.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by Willard R. Trask(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9), 이동하(역), 『성과속: 종교의 본질』(서울: 학민사, 1983), pp.10-11) 엘리아데에게 있어 종교적 경험은 성의 경험, 즉 성현의 경험이다.(앞의 책, pp.155-156). 엘리아데의 ‘성현’ 관념이 기독교 전통의 실재 관념을 내포하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것을 감득한 주체(인간)의 경험을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불교 신앙 안에서 붓다와 보살의 몸 또는 가피(加被)를 감득하는 경험(자내증(自內證) 역시 ‘성현’의 변주로 환원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본 논문에서 ‘낙산’은 『화엄경』 「입법계품」의 보타락가산(普陀洛伽山)과 구별하여 대체로 신라국 토 내에 건립된 관음주처인 낙산을 가리킨다.

조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서사의 구조와 특징, 그것을 구성하는 중심 화소들, 주인공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논구할 것이다. 관음성지로서 낙산이 신라 및 고려의 종교지형 안에서 담지했던 상징적 의미를 고찰하고, 스토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찬자 일연의 의도와 목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I. 이 땅 본연의 관음보살 존격(尊格)의 정립

「낙산 이대성」 조는 해동화엄의 종조였던 의상이 신라 동북방 해변 곶에 관음보살의 진신이 상주하고 있음을 증험하고 낙산사를 세웠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신앙 서사들을 종합하여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의상의 기사는 이 땅 본연의 신성으로서 신라국토 내에 상주하는 관음보살의 존격을 정립하고, 그 성현 성지로서 낙산의 상징성을 구축한 기원 서사라는 점에서 신화적 성격을 보여준다. 동시에 역사적 인물인 의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서사의 역사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관음보살은 대승 경전 전반에서 삼계육도(三界六道)의 실질적 구제자로 상징되어 왔다.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념을 구현하는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성이라고 할 수 있다.³⁾ 중국에 불교 안에서 『묘법연화경』의 한역 이후 더욱 대중적으로 신앙 되면서, 각종 재난에서 구제해주는 영웅의 이미지로 관음보살과 관련된 다양한 영험 설화들이 창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⁴⁾

한반도에도 불교가 수용되면서 관음신앙이 매우 활성화되었다. 우선 서해안 지역을 따라

3) 관음보살은 화신(化身)의 관념을 바탕으로 삼계 25유(有)의 모든 중생을 제도 교화하는 신성으로 상징되었다. 대표적으로 『妙法蓮華經』卷七(『大正藏』4, pp.57上-57中)은 33 응신을, 『首楞嚴經』卷六(『大正藏』19, pp.128中)은 32 응신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화신의 관념은 일체 중생의 근기에 수순(隨順)하는 관음보살 구제 방편의 수승함을 나타내기 위해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승불교 경전들에서 관음보살은 일반의 보살 대중의 한 구성원으로, 아미타불의 협시이자 미래세의 계승자로, 재난 구제를 위한 수승한 방편의 구현자로, 특정 주처에 상주하는 선지식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특히 동아시아 민중들에게는 독립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자로 존승되었다.(Chün-fang Yü, *K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va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32.

4) 현재까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관음영험서사는 동진 시기 부량(傅亮, 374-426)의 『광세음응험기(光世音應驗記)』이다. 이를 필두로 장연(張演, 5세기 전반)의 『속광세음응험기(續光世音應驗記)』와 육고(陸杲, 425-532)의 『계관세음응험기(繫觀世音應驗記)』가 연이어 나왔다(정환국, 「불교 영험서사의 전통과 『법화영험전』」, 『고전문학연구』40, 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11, p.128.)

관음보살과 관련된 사찰들이 많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백제불교의 초전자이자 관음 신봉자로 추정되는 마라난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해동고승전』 「석마라난타」 조에는 백제의 성주산(聖住山)에 관음보살의 영장(靈場)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⁵⁾ 또 사찰 사적기(事蹟記)나 지역에 유통되는 설화 등을 통해 관음사, 대참사, 내소사, 월명암, 실상사 등 서남해안을 따라 형성된 관음성지 연기설화들이 확인된다. 대체로 7C 초·중반에 형성된 이들 사찰의 창건 및 중창 서사들은 공통적으로 해양을 통해 이 땅의 인연처를 찾아 도래한 관음보살에 대한 설화적 기록이다.⁶⁾

해양을 통해 불보살이 이 땅에 유입되는 서사는 『삼국유사』에서도 확인된다. 가야의 허황후가 사탑과 불구(佛具)를 신고 도래했다는 이야기, 진흥왕 때 장육존상을 주조할 황금을 실은 배가 인연 국토를 찾아 신라 해안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볼 수 있다.⁷⁾ 금강산의 유점사 연기 설화에도 53불이 배를 타고 와 산 전역으로 주처를 찾아 흩어졌다는 내용이 있다.⁸⁾ 역시 이방에서 도래한 불보살이 인연 처를 찾는 ‘성지 택정’의 모티브가 주가 된다. 이들 연기 설화는 외래 신격에 대한 생경함과 부정합성을 상쇄시키고 그들이 이 땅의 신성으로 승인되고 내재화되는 기제로 작동한다.⁹⁾ 수용 초기에 관음보살 역시 서역에서 출현한 외래 신성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했을 터이며, 따라서 이 땅의 신격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낙산 이대성」 조에는 이방 신성의 도래와 승인이라는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

5) 『海東高僧傳』卷一, 「釋摩羅難陀」條,(『大正藏』50, p.1017下1) “然則三韓在閻浮提東北邊 非海島矣 佛涅槃後六百餘年乃興. 中有聖住山. 名室梨母怛梨(唐言三印山)峻峰高聳. 觀世音菩薩宮殿在彼山頂. 卽月岳也. 此處聖住未易殫書. 然百濟乃馬韓之謂矣.” 최연식은 여기서 언급된 월악은 월출산이며, 백제승 혜현(慧現: 570~627)이 이곳의 관음신앙을 현창했던 인물로 추정하였다. (최연식, 「월출산의 관음신앙에 대한 고찰」, 『천태학연구』10, 서울: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7, p.219.)

6) 이들 사찰과 관련된 연기설화의 중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배금란, 「신라 관음신앙 연구: 관음성현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p.109.)

사찰	설화의 모티프와 성격	건립 추정 시기
관음사/백제	해양 도래의 관음보살/창사연기	4세기 말~5세기 초
대참사/백제	해양 도래의 관음보살/창사연기	7세기 초
내소사/백제	관음 화신의 불사참여/중창연기	7세기 초
월명암/백제	해양 도래의 관음보살/창사연기	7세기 초
실상사/통일신라	해양 도래의 관음보살/창사연기	7세기 후반

7) 『三國遺事』卷三, 塔像第四, 皇龍寺丈六條.

8) 李穀, 『稼亭集』5卷, 「東遊記」.

9) 배금란, 앞의 논문, p.107.

다. 오히려 이 땅에 본래 상주하는 관음보살의 존격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해의 한 해변에서 2.7일의 재계를 통해 관음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고 그곳이 관음보살의 상주처임을 증험했다는 의상의 성현 감득 체험이 기반이 되고 있다.¹⁰⁾ 세속적 공간이었던 신라 동북방의 해변은 의상의 자내증을 통해 관음보살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전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상의 기사는 ‘역사적 신화’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실재했던 인물인 의상의 행적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며, 불보살의 현현과 같은 비현실적 화소를 동원한 스토리텔링이라는 점에서 신화적이다. 이를 통해 신라국토 내에 관음보살 상주의 성지가 구축되는 기원을 보여주고 있다.

신화의 진실성은 무엇보다 그것을 수용하는 공동체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전승자와 수용자가 특정 신화를 진실하고 신성한 것으로 승인할 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문화적 실재로 기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종교학 분야에서 신화는 세계 또는 민족의 기원을 제시하거나, 모방 되어야 할 행위의 원형적 패턴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이해 되어왔다.¹¹⁾ 특히 기원 신화의 주된 모티프는 특정 세계나 공간, 사물 등의 출현과 관련된 신 혹은 신적 영웅들의 창조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낙산 이대성」 조에서 의상 역시 불교 신성과 소통하는 영웅의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다. 동해 바닷가의 해변굴을 관음보살 진신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견인하는 주인공이다. 의상이 관음보살 진신의 성현을 감득하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에는 천룡팔부, 동해룡, 수정염주, 마니보주, 허공법신 등의 신화적 모티프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처럼 「낙산 이대성」 조는 의상의 자내증과 관련된 서사가 원형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10) 『三國遺事』卷三, 塔像第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條.

11) 18세기 이후 역사를 과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신화를 원시 사고에 기인한 비논리적 허구로 평가 절하했던 풍토를 비판하면서, 엘리아데는 원초적 시간에 발생했던 신성한 사건이나 총체적 실재로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특정의 영토, 식물, 인간의 행위, 제도 등과 같은 부분적 실재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성한 이야기’이자 ‘진정한 역사’로 신화를 이해했다.(Eliade, *Mircea, Myth and reality*, trans by Willard T. Trask(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3), pp.5-6)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 역시 『야생의 사고』에서 신화적 사유의 논리성과 과학성을 밝히고 있으며(김현자,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엘리아데와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종교학연구』20(서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1), pp.43-44), 카렌 암스트롱도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간과 세계의 기원에 대한 순수한 의미를 보여주는 영속철학으로 신화를 이해했다.(Karen Armstrong, *A short history of myth*,(Edinburgh; New York, Canongate, 2006), pp.6-7). 혼코 역시 “신들의 이야기, 세계의 시원, 창조, 근본적 사건들, 세계, 자연, 문화가 통합적으로 창조되고 질서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신들의 ‘본보기적 행위’에 대한 종교적 설명으로 신화를 정의했다(Lauri Honko, “The Problem of Defining Myth.” *Scripta Instituti Donneriani Aboensis*, 6, Åbo, Finland. 1972. p.15).

이후 원효, 범일, 조신 등 역사적 인물들을 매개로 창출된 설화들이 중첩되면서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의 시대까지 역사적 진실성을 담보한 성스러운 이야기로 수용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기억으로 전승되면서 이후에도 이 땅에 새로운 형태의 관음영장이 형성될 때마다 그 원형적 모티프가 환기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강원도 통천군에 형성된 관음성지인 금란굴에는 ‘지성으로 귀의하면 관음보살이 나타나고 푸른 새가 날아온다.’는 전설이 있다.¹²⁾ 여기에는 「낙산 이대성」 조에서 원효가 만났던 파랑새의 모티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고려시대, 경기도 장단군 용암산에도 낙산사와 동명(同名)의 관음사찰이 건립되었는데, 이곳의 관음 소상(觀音塑像)을 만든 이를 의상으로 가탁하고 있다.¹³⁾ 또 조선 중기 이후에 조성된 월출산 무위사의 극락전 백의 관음도에는 해상에서 관음보살에게 예를 올리고 있는 노승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역시 의상의 관음진신 친견 설화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사례들은 낙산 서사가 이후 이 땅에 창출된 유사한 형태의 관음 성지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원형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각 되는 것은 이방 도래의 신성이 아니라 본래 이 땅에 상주하는 관음보살의 존격이다.

Ⅲ. 「입법계품」 관음영장(觀音靈場)의 공간적 형상화

「낙산 이대성」 조 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묘사된 관음보살 주처인 보타락가산 회상의 중심 메타포들을 대거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낙산(洛山)’이라는 명칭과 그 지형적 조건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옛날 의상법사가 처음으로 당나라에서 돌아와, 대비진신이 이 해변굴 안에 산다고 듣고 낙산이라고 이름 하였으니, 이는 서역에 보타락가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소백화라고도 하는데

- 12) 李穀, 『稼亭集』5卷, 東遊記. 강원도 회양군 금강산의 보덕굴은 고려 시대 회정이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시 의상의 진신 서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46卷, 江原, 淮陽都護府, 山川.)
- 13) 『新增東國輿地勝覽』12卷, 京畿, 장단도호부 불우(洛山寺); 『高麗史』28卷, 世家 28, 충렬왕, 世家41, 공민왕.
- 14) 『新增東國輿地勝覽』44卷, 襄陽都護府, 佛宇, 洛山寺 조에는 고려시대 문인 유자량이 낙산사를 방문하여 쓴 것으로 알려진 오연율시(海岸高絕處 中有洛迦峯 大聖住無住 善門封不封 明珠非我欲 青鳥是人逢 但願洪波上 親瞻滿月容)가 수록되어 있다. 이 시가 무위사 극락전 관음보살도에 전재되어 있다(최연식, 앞의 논문, p.213).

백의대사의 진신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를 빌려서 이름을 낙산이라 한 것이다.¹⁵⁾

기사는 의상이 동해의 한 해변굴에 관음보살의 진신(眞身)이 산다는 것을 듣고 ‘낙산’으로 명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의상이 그곳을 낙산으로 명명하게 된 근거를 서역(西域)에 백의보살 진신이 머물러 있는 보타라가산(寶陁洛伽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서역에 관음보살의 주처로 형상화된 ‘보타라가산’이 실재한다는 것을 의상이 알고 있었고, 같은 의미로 ‘낙산’이라고 명명했음을 밝히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보타라가산은 80권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용어이다.¹⁶⁾ 의상 당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고, 지엄의 휘하에서 공부했던 텍스트는 60권 『화엄경』이었다. 여기에는 관음보살의 주처가 ‘광명산’으로 표기되어 있다.¹⁷⁾ 그러나 의상이 80권 『화엄경』을 직접 접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보타라가산’이란 용어를 인지하고 있었을 정황을 배제할 수 없다.¹⁸⁾ 의상이 당에서 구법을 하던 때는 현장법사가 인도여행을 마치고 귀국해(645년) 활동하던 시대이며, 귀국 이듬해에 황제의 명으로 『대당서역기』를 간행함으로써 인도 남부에 현존하는 관음도량인 ‘보타라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의상이 중국에서 수학하는 동안에 현장의 『대당서역기』를 접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명칭 외에도 바다에 인접한 산이라는 지형적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입법계품」에서 선재 동자가 27번째 만났던 선지식인 비슬지라 거사의 입을 빌려 관음보살 주처의 특징이 ‘바다 위의 산’으로 묘사되고 있다. 동해 낙산의 위치 역시 해변에 인접한 산의 굴로서 이러한 지형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해변굴은 40권 『화엄경』에서 관음보살의 주처를 ‘금강굴’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응된다. 이와 함께 의상이 관음보살의 진용을 감득하는 사건

15) 『三國遺事』卷三, 塔像第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條: 昔義湘法師始自唐來還, 聞大悲真身住此海邊嶺內, 故因名洛山, 蓋西域寶陁洛伽山. 此云小白華乃白衣大士真身住處. 故借此名之.(본 연구의 텍스트로서 『삼국유사』의 본문과 이에 대한 해석은 한국사DB(<http://db.history.go.kr>)의 텍스트를 참조하여 첨삭 조정하였다. 이하의 사례에서도 동일함).

16) 「入法界品」第39-9, 『華嚴經』80 卷第68 (『大正藏』10, p.366下) “善男子, 於此南方 有山名補怛洛迦 彼有菩薩 名觀自在 … 卽說頌曰 “海上有山多聖賢 衆寶所成極清淨 華果樹林皆遍滿 泉流池沼悉具足 勇猛丈夫觀自在 爲利衆生住此山 汝應往問諸功德 彼當示汝大方便.”

17) 「入法界品」第34-8, 『華嚴經』60 卷第51(『大正藏』9, p.718上) “漸漸遊行至光明山. 登彼山上周遍推求 見觀世音菩薩住山西阿.”

18) 전해주도 범어에 능했던 의상이 ‘백화도량’의 원명(potalaka)과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전해주, 「의상화상 발원문 연구」, 『불교학보』29(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p.339-344.

19) 『大唐西域記』卷10(『大正藏』51, p.932上) “秣刺耶山東有布咀洛迦山 山徑危險巖谷欹傾 山頂有池其水澄鏡流出大河周流繞山二十匝入南海 池側有石天宮 觀自在菩薩往來遊舍.”

에 대한 스토리텔링에는 낙산이 「입법계품」의 관음영장에 상응하는 성지로 구현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의상이) 재계한지 7일째 새벽에 좌구를 물 위에 띄웠더니 용천의 팔부가 굴속으로 인도하였다. 허공을 향해 예배드리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어주므로 의상이 받아 물러났다. 동해의 용 역시 여의보주 한 알을 바치므로 법사가 받들고 나왔다. 다시 7일을 재계하고 나서 곧(관음의) 진용을 보았다. (관음이) 말하기를, “자리 위의 산정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지음이 마땅하리라”고 하였다. 법사가 그 말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상을 빚어 모시니 원만한 모습과 고운 자질은 엄연히 하늘이 낸 듯 했다. 대나무가 다시 사라졌는데, 그제야 그 땅이 진신의 주치임을 알았다. 이로 인해 그 절 이름을 낙산이라고 하고, 법사는 받은 두 구슬을 성전에 모셔두고 떠났다.²⁰⁾

의상이 7일의 재계 후에 좌구를 물에 띄우니 용천의 팔부가 의상을 굴 속으로 인도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또 허공을 향해 예배하니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내어 주었고 동해의 용이 의상에게 여의보주 한 알을 바쳤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용천 팔부, 수정염주, 여의보주는 모두 「입법계품」에 나타나는 관음영장의 메타포이다. 역시 40권 『화엄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금강굴에는 갖가지 아름다운 마니보배로 장엄하였고, 웅망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는 항상 보석 연화좌에 앉아 있노라. 천, 룡과 아수라 대중과 긴나라, 가루라왕, 나찰 등, 이러한 권속들에 항상 둘러싸여, 나는 항상 대비문을 설하노라.²¹⁾

20) 『三國遺事』卷三 塔像第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條. “齋戒七日浮座具晨水上, 龍天八部侍從引入峴內. 叅禮空中出水精念珠一貫給之湘領受而退. 東海龍亦獻如意寶珠一顆師捧出. 更齋七日乃見真容. 謂曰, ‘於座上山頂雙竹湧生, 當其地作殿宜矣.’ 師聞之出峴, 果有竹從地湧出. 乃作金堂塑像而安之, 圓容麗質儼若天生. 其竹還沒. 方知正是真身住也.”

21)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華嚴經』40 卷第16(『大正藏』10.293, p.733下) “爾時觀自在菩薩摩訶薩 欲重明此解脫門義 爲善財童子而說偈言 “善來調伏身心者 稽首讚我而右旋 我常居此寶山中 住大慈悲恒自在 我此 所住金剛窟 莊嚴妙色衆摩尼 常以勇猛自在心 坐此寶石蓮華座 天龍及以脩羅衆 緊那羅王羅刹等 如是眷屬恒圍遶 我爲演說大悲門.”

이처럼 의상이 이후에 번역된 40 『화엄경』의 메타포들이 등장하는 것을 토대로 낙산 신앙이 중국 보타산 관음신앙의 영향을 받아 범일이 건립하였으며, 개창자를 의상에게 가탁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黃金順, 「洛山說話와 高麗水月觀音圖, 普陀山觀音道場」, 『불교학연구』 18 (불교학연구회, 2007), pp. 99-100). 이와 달리 중국에서 보타산 관음신앙을 접한 범일이 귀국 후 의상의 관음신앙이 낙산을 중심으로 자리잡혀 있음을 확인하고 관음과 밀접한 정취보살상을 봉안하였다는 견

이러한 묘사들은 「입법계품」의 신화적 화소들이 의상의 서사 안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음보살이 살고 있는 금강굴을 장엄하는 마니보배는 의상의 설화에서 허공법신²²⁾이 내어준 수정염주와 동해룡이 바친 여의보주에 대응된다. 또 관음보살의 수호 권속인 천룡 팔부중은 의상을 인도했던 용천 팔부와 상응한다. 이처럼 관음영장에 대한 「입법계품」의 메타포들이 그대로 의상의 신앙체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동원되는 것은 의상이 화엄사상가라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하는 의상의 모습에 선재동자가 투영되고 있다. 「입법계품」에서 관음보살의 주처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보타락가산에 이르러 선지식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선재의 모습은²³⁾ 동해변에서 재계를 통해 마침내 관음보살을 친견하게 되는 의상의 이미지에 중첩되고 있다. 또 관음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의상이 재계했던 기간을 2.7일로 나타내는 것도 선재동자의 행적과 대응된다. 의상은 『화엄경문답』에서 선재의 구도행에 대해 “선재는 무량겁 중에 한량없는 선지식을 섬겨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을 얻었으나 제 이칠일의 한 때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가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다.²⁴⁾ 여기서 2.7일은 깨달음의 증득을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숫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2.7일의 재계를 통해 의상이 관음보살 진신을 친견했다고 하는 서술은 화엄행자로서 의상의 위상을 선재에 대응시키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범일의 정취보살 봉안 기사를 통해서 「입법계품」에 대응되는 관음영장 서사의 대하드라마가 완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국유사』에 의하며 남종선 제안(齊安) 선사

해도 있다(박미선, 「의상과 원효의 관음신앙: 『삼국유사』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60(춘천: 한국고대사학회, 2010), pp.207-208). 보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범일이 낙산을 관음 성지로 현창한 주체였다면 굳이 정취보살을 봉안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는 신라 사회에서 낙산이 이미 관음성지로 인식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 인물이나 장소와 관련된 구전 서사가 기록 문헌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서사의 원형적 모티프와 상징체계가 당대의 언어로 윤색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낙산 서사 역시 수세기에 걸치는 전승의 과정에서 윤색과 착종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배금란, 앞의 논문, p.118).

22) 의상이 ‘허공을 향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서술에서 허공은 범신불에 대한 묘사로 이해할 수 있다. 『화엄경』에서 여래의 범신을 열 가지 비유로 교설하고 있는데, 그 중에 허공이 있다(一切法身不生不歿 譬如虛空 不可破壞: 『入法界品』第39-9, 『華嚴經』(80) 卷第68 (『大正藏』10, p.366下)). 법계에 대한 이와같은 화엄적 인식에서 허공은 범신 그 자체로 이해될 수 있다.

23) 『入法界品』第39-9, 『華嚴經』(80)卷第68(『大正藏』10, p.366下) “漸次遊行 至於彼山 處處求覓 此大菩薩 見其西面巖谷之中 泉流縈映 樹林鬱鬱 香草柔軟 右旋布地 觀自在菩薩 於金剛寶石上 結跏趺坐 無量菩薩 皆坐寶石 恭敬圍遶 而為宣說大慈悲法 令其攝受一切衆生 善財見已 歡喜踊躍 合掌諦觀。”

24) 김상현, 『교감번역화엄경문답』(서울: 도서출판씨아이알, 2013), p.44.

법을 받고 구산선문의 하나인 굴산문을 열었던²⁵⁾ 범일(810-889)은 중국 유학 중 명주(明州)의 개국사(開國寺)에서 한쪽 귀가 없는 동향의 사미로부터 귀국하면 자신을 위해 사찰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귀국 후 범일은 익령현에서 귀 없는 정취보살상을 발견하여 낙산사에 봉안한다.²⁶⁾ 범일의 기사는 신라 하대에 범일 문중에 의해 낙산사가 새롭게 중창되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정취보살의 봉안 또한 「입법계품」 서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정취보살은 「입법계품」에서 보타락가산으로 비천해 온 동방의 신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때 동방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정취이고, 공중으로부터 사바세계에 와서 철위산 꼭대기에서 발로 땅을 누르니, 사바세계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 … 그런 뒤에 관자재보살이 있는 데로 오니, 관자재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정취보살이 여기 오는 것을 보느냐?” 선재는 말하였다. “보나이다.” 관자재보살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는 그에게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의 행을 배우며 보살의 도를 닦느냐고 물으라.”²⁷⁾

보는 바와 같이 보타락가산은 선재가 관음보살과 정취보살 두 대성을 알현하는 회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엄경』 「입법계품」의 선지식들이 각각의 처소에서 구법을 위해 남순(南巡)하는 선재 동자의 예방을 받고 있는데 비해, 정취보살은 관음보살의 주처인 보타락가산으로 비천(飛遷)해 오는 특수한 위치를 보여준다. 범일의 기사는 이처럼 관음, 정취 두 성자

25) 조영록, 「羅·唐 동해 관음도량, 낙산과 보타산-동아시아 해양불교 교류의 역사 현장」, 『정토학연구』17(서울: 한국정토학회, 2012), p.216.

26) 『三國遺事』卷三, 塔像第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條. “後有嶺山祖師梵日太和年中入唐到明州開國寺, 有一沙彌截左耳在衆僧之末, 與師言曰, “吾亦鄉人也. 家在溟州界翼嶺縣德耆坊, 師他日若還本國須成吾舍. 既而遍遊叢席, 得法於盐官 事具在卒傳. 以會昌七年丁卯還國, 先創嶺山寺而傳教. 大中十二年戊寅二月十五日夜夢, 昔所見沙彌到窓下曰, “昔在明州開國寺與師有約既蒙見諾, 何其晚也. 祖師驚覺押數十人到翼嶺境尋訪其居. 有一女居洛山下村問其名, 曰德耆. 女有一子年才八歲, 常出遊於村南石橋邊, 告其母曰, 吾所與遊者有金色童子. 母以告于師, 師驚喜與其子尋所遊橋下, 水中有一石佛昇. 截左耳類前所見沙彌, 即正趣菩薩之像也. 乃作簡子卜其營構之地, 洛山上方吉乃作殿三間安其像.”

27) 「入法界品」第39-9, 『華嚴經』80 卷第68(『大正藏』10, p.367中). “爾時東方有一菩薩 名曰正趣 從空中來 至娑婆世界輪圍山頂 以足按地 其娑婆世界 六種震動 一切皆以衆寶莊嚴 正趣菩薩 放身光明 映蔽一切日月星電 天龍八部 釋梵護世 所有光明 皆如聚墨 其光普照 一切地獄畜生餓鬼閻羅王處 令諸惡趣 衆苦皆滅 煩惱不起 憂悲悉離. … 然後來詣觀自在所 時觀自在菩薩 告善財言 善男子 汝見正趣菩薩 來此會不 白言已見 告言善男子 汝可往問 菩薩云何學菩薩行 修菩薩道.”

의 회상인 『화엄경』의 보타락가산을 신라국토 안에 구현하는 서사로서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²⁸⁾ 이러한 측면에서 범일의 기사는 의상의 설화와 함께 「낙산 이대성」 조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낙산은 명실상부하게 신라국토 내에 형상화 된 화엄정토이자 「입법계품」의 ‘보타락가산’에 상응하는 관음 상주 도량으로 완성되고 있다.

IV. 불국토 관념의 상승적 확장

관음보살의 진신이 사는 곳이라는 점에서 낙산은 세속적 공간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스러운 세계이다. 신라국토를 이처럼 불교적 관념을 통해 수식하는 것은 불교 전래 초기부터 나타났던 현상이다. 전불지(前佛地) 혹은 불연지(佛緣地)의 담론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삼국유사』의 탐상편 「황룡사장록」 조에서 자장은 왕경의 황룡사가 가섭불과 석가가 설법하던 땅이며 그 증거인 연좌석이 현존해 있다는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고 있다.²⁹⁾ 가섭은 석가불 이전의 붓다로, 석가의 탄생지인 서축(인도)과 대응하여 동축으로서 신라가 먼저 붓다의 나라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³⁰⁾

중고기 불교 안에서 신라국토를 불교적으로 수식하는 바탕을 제공한 것은 수미산 세계관이었다. 수미산은 천계와 육계 사바세계를 함용(含容)하는 불교적 우주의 중심축이다. 정상의 33 천과 중턱의 사천왕을 통솔하면서 불법을 수호하는 신왕 제석의 관념은 신라 재래의 천신 신앙과 결합하여 왕권의 신성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로 원용되기도 했다. 『삼국유사』의 「천사옥대」 조에서 진평왕이 제석으로부터 옥대를 하사받았다는 이야기가 대표적 사례이다. 또 「선덕여왕지기삼사」 조는 선덕여왕의 무덤이 위치한 낭산을 도리천으로 비정함으로써 신라국토를 수미산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와 국토에 대한 신라 중심적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신라 사회에서 이러한 불국토 담론은 대체로 신라 왕실과 왕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³¹⁾

주목할 것은 낙산 관음정토의 건립이 수미산 우주관을 토대로 중고기에 유행했던 왕경 중심의 불국토관을 극복하는 새로운 차원의 국토 이해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중대 이후 의상과 그의 문도들에 의해 선양되었던 화엄법계관이 기반이 되고 있다. 화엄법계관은

28) 배금란, 『『삼국유사』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원효 설화 분석』, 『한국종교학회』 78-3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8), p.238.

29) 『三國遺事』卷三 塔像第四, 皇龍寺丈六條.

30) 배금란, 앞의 논문, p.120.

31) 배금란, 앞의 논문, p.121.

기본적으로 사법연기(事法緣起)의 세계가 곧 법성 원융(法性圓融)의 연화장세계로 드러나는 이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사(理事)와 사사(事事)의 상입상즉(相入相卽)으로 요약될 수 있다. 리(理)와 사(事)는 화엄 사상에서 존재와 세계를 함축하여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의상 화엄 사상의 요체를 담은 저술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이하 『법계도』)는 화엄법계관의 요체를 210자의 한자로 함축하여 도상화하고 있다.³²⁾ 이를 통해 사법계와 리법계가 불이(不二)의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함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원융무이상(圓融無二相)한 법성(法性)이 자성(自性)을 고집하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진성(眞性)의 경계를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中一) 일즉일체다즉일(一卽一切多卽一)’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의 경계로 과위(果位)에 입각해서 존재와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의상은 이처럼 성기(性起)와 연기(緣起)의 중도의(中道義)에 근거하여 법성 세계로의 귀입이 연기문을 통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현상세계를 중생과 부처, 중생세간과 지정각세간이 상즉상입하는 연화장세계로 긍정하는 묘유(妙有)의 세계관이라고 할 것이다.³³⁾

이러한 인식은 붓다와 중생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의상은 화엄법계의 진실한 의미를 구체적 현실인 범부의 오척신(五尺身)에 입각해서 밝히고 있다. 법성의 의미에 대해 의상은 ‘법(法)이란 범부의 오척 되는 몸과 마음이며, 성(性)은 범부 오척신의 부동(不動)인 무주(無主)’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생의 현실이 곧 법성을 체로 하는 붓다의 실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사후가 아닌 산 몸으로 정토에의 왕생을 추구했던 의상의 실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인식에서는 타방이나 내세 정토관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거리가 소거된다. 신라국토 내 동북방 해변이 곧 관음 진신의 상주처인 낙산이라고 하는 서사가 의상 자신의 자내증을 통해 구현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은 화엄사상의 법계 인식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⁴⁾

이러한 의상의 입장은 그가 부석사를 창건하면서 보처보살이 없는 독존 아미타불상만을 봉안했던 데서도 확인된다. ‘왜 무량수전에 불상만 두고 보처보살과 영탑을 세우지 않느냐?’는 제자의 질문에 의상은 스승 지엄의 말을 빌려 “일승의 아미타는 열반에 들지 않으며 시방의 정토를 체로 삼음으로써 생멸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관정·수기한 자들이 법계에 충만하여 (그들이) 보처와 보궐이 된다.’

32) 전해주, 『화엄의 세계』, pp.286-88.

33) 배금란, 앞의 논문, p.122.

34) 배금란, 앞의 논문, p.123.

고 하였다³⁵⁾. 부처는 열반에 들지 않으므로 비움이 없어 보처 영탑을 세우지 않은 것이니 이것이 일승의 깊은 뜻이다.”라고 답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의상의 입각처에서 낙산과 부석사는 신라국토라고 하는 사법계 내에 존재하는, 현재의 몸으로 즉시 왕생 가능한 현실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경설이나 신화 속에 제시된 관념적 경계가 아니라 신라국토 안에 사상(事相)으로 드러난 성지라는 점에서 낙산은 불교적 성현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왕경 중심의 불국토(佛國土) 관념을 상승적으로 극복하고, 신라국토 곳곳이 불보살 상주의 정도로 상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 더욱이 수미산 우주관에서 보이는 육계 유평의 예토가 아닌 불·보살 상주의 정도로서 신라국토의 종교적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고 있다.³⁷⁾ 동시에 의상이 화엄 전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동북방 국경 지대의 주변성은 새로운 차원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³⁸⁾

35) 『入法界品』第34-17, 『華嚴經』60 卷第60(『大正藏』9, p.786中.) “或見阿彌陀 觀世音菩薩 灌頂授記者 充滿諸法界.”

36) 『浮石寺圓融國師碑』“像殿內唯造阿彌陀佛 像無補處亦不立影塔 弟子問之, 相師曰師智儼云 ‘一乘阿彌陀無入涅槃 以十方淨土爲體無生滅相故.’ 華嚴經入法界品云 ‘或見阿彌陀觀世音菩薩灌頂授記者 充諸法界補處補闕也.’ 佛不涅槃無有闕時故 補處不立影塔 此一乘深旨也.”

37) 배금란, 앞의 논문, p.124.

38) 가마타 시게오는 의상의 화엄종이 중대 신라에서 대표적인 국가불교로 기능했다고 보았다. 화엄의 ‘일즉다 다즉일’의 원융사상은 강력한 고대 중앙집권적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였으며, 특히 화엄철학의 근본인 일심사상이 제왕의 권력을 표상하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주장했다(鎌田茂雄, 신현숙 역, 『한국불교사』(서울: 민족사, 1988), p.63, p.65.); 남동신, 「신라 통일기의 정치와 사상: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현실』20(서울: 한국역사연구회, 1996), pp.49-51 참조). 한국 불교학계에서도 이기백(『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1976) 등의 학자들이 의상계 화엄종이 신라 중대 전제왕권을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작동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김상현은 신라 중대 왕권과 밀착했던 것은 법상종이며, 의상계 화엄과의 관계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김상현, 『신라 화엄사상사 연구』, 서울: 민족사, 1991, pp.263-269, pp.275-294). 남동신 역시 ‘전제왕권 이념설’은 화엄사상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실상 의상 화엄의 핵심은 대립물 간의 본질적인 무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일즉다 다즉일’의 논리는 전제왕권보다는 개체 사이의 절대 평등을 나타내는데 적합한 사상임을 강조하였다(남동신, 같은 논문, p.58). 화엄법계관을 토대로 신라국토의 변지를 불보살이 상주하는 차방 정도로 상정한 것은 신앙의 영역에서 왕경과 지방의 차별성을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천민 출신의 제자를 거리낌 없이 수용했던 의상의 행적을 통해서도 신라사회에서 화엄사상이 신분·성별 간의 평등성을 선양하는 기제로 작동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관음보살 성현(聖顯)의 현존성

일연은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이라는 제하에서 신라 중대 초기의 인물인 의상과 원효는 물론 하대의 인물인 범일, 조신 나아가 고려 초의 일화까지 종합하여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고 있다. 각각의 인물과 관련된 일화들을 상호 연동시킴으로써 낙산에 상주하고 있는 관음보살의 위신력을 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낙산 이대성」 조는 일연이 의도를 갖고 재구성한 서사로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상주하는 관음보살 구제 활동의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상의 이야기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관음영장이 의상의 자내증을 통해 신라국토 내에 구현되는 성지 기원 서사이다. 이에 비해 원효의 서사는 낙산에 상주하는 관음보살 구제활동의 역동성을 부각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의상과 원효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모티프가 진신과 화신의 양태로 표현된 관음보살 현신의 관념이라는 점이다. 『삼국유사』에 실린 총 65조목 71편³⁹⁾의 불교 설화 중에서 불보살 현신의 모티프가 나타나는 것이 26편에 해당하는데, 그 중 관음영험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⁰⁾ 무엇보다 진신과 화신의 메커니즘이 모두 등장한다는 점이 관음영험담의 특징이다.

의상과 원효의 기사는 관음보살 진신과 화신의 관념을 체용 구조로 드러내고 있다. 원효가 진신을 친견하러 가는 도중에 만났던 벼 베는 여인과 빨래하는 여인은 낙산 관음 진신의 화신으로 증첩되고 있다. 이를 통해 관음보살이 신라 동북방 해변굴에 고착된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신라 민중들의 삶 속에 어디든지 나투어 구제하는 역동적인 신성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화신의 양태를 신라 기층민의 모습으로 나타냄으로써 관음신앙이 토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기왕의 연구들이 의상과 원효의 설화를 ‘성현 만남’ 모티브로 해석하여 진신 친견 성패의 문제를 논하며 두 성사 간의 우월을 비교했던 흐름을 볼 수 있는데,⁴¹⁾ 「낙산 이대성」 조에서

39) 김기중, 『『삼국유사』 소재 불교설화의 ‘불·보살 現身’ 양상과 그 의미』, 『佛敎學報』75(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p.85.

40) 26가지 사례(같은 조 안에서 개별사건을 나눌 때) 중에서 진신 성현의 사례가 9편, 응화신 성현의 사례가 16편이다. 현신의 주체는 관음보살이 가장 큰 비중(10회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문수, 미륵, 지장, 세지, 보현, 정취보살 등으로 나타난다. 부처의 경우에는 석가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이 있다.(배금란, 앞의 논문, p.105).

41) 특히 원효에 대해서는 진신 친견의 성패 여부와 관련하여 대체로 두 가지 흐름이 파악된다. 우선 파계하여 승려의 지위를 버린 원효에 대한 당대의 비판적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박미선, 앞의 논문; 윤중배, 『『三國遺事』 高僧說話에 나타난 民衆意識』, 『東洋古典研究』4,

의상과 원효의 이야기는 진신과 화신 관념을 기반으로 동해 낙산에 상주하는 관음보살이 신라 민중들과 어떻게 소통 감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성현 서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의상은 진신을 증험하여 이 땅에 상주하는 관음보살의 관념을 견인하고 있으며, 원효는 화신 관념을 토대로 이 땅 민중들의 삶 속에서 화광동진하는 관음보살의 제도 활동을 부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낙산에 정취보살을 봉안한 범일의 기사는 의상의 기사와 함께 『화엄경』 「입법계품」의 관음영상을 신라국토 내에 구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완성하고 있다. 범일이 중국에서 만났던 신라 출신의 귀 없는 사미는 정취보살의 화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낙산사를 중창하는 과정에서 보살상을 땅(물)에서 발굴하였다는 모티프는 정취보살 역시 이 땅 본연의 진성임을 부각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범일이 관음보살 상주성지로서 낙산에 내포된 화엄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관음·정취 두 대성의 진신이 항상 머무르는 성지로서 낙산의 상징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연이 고려 시대의 일화를 신라 하대의 인물인 조신의 이야기 앞에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산사의 두 대성과 보주가 원의 침입으로 인해 훼손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센 화마에도 관음과 정취 두 보살이 봉안된 성전이 화재를 면하였다는 이야기와 병란으로 소실될 위기에 처한 두 보주를 수호했던 결승의 일화가 그것이다. 마침내 두 보주가 국가적 신보로 인식되어 고려 왕실의 내고에 봉안되었던 역사적 정황을 보여준다. 또 화난과 전란에서 발현된 관음보살의 신력을 강조하고 있다. 일연이 이처럼 고려 시대의 일화를 의상, 원효, 범일의 이야기와 연동하여 배치한 것은 창건과 중창, 소실될 위기의 극복 과정 등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 세기 동안 부침해온 낙산사의 역사성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서울: 동양고전학회, 1995, pp.8-11. ; 이한길, 「양양불교 설화 속에 보이는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구비문학연구』23, 서울: 한국구비문학학회, 2006, p.13). 한편, 의상과 다른 층위에서 속화된 관음을 만난 것일 뿐 원효 역시 깨달음을 얻은 것이며(조현우,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의 은유적 이해, 『한국고전연구』11, 서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pp.192-193. ; 고운기·황패강, 「낙산 이대성(洛山二大聖) 조와 일연의 세계 인식 질의」, 『고전문학연구』8(서울: 한국고전문학회, 1993), pp.36-38. ;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낙산 이대성 관음·취·신」의 의미」, 『연세어문학』32(서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pp.130-131. ; 김현선,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삼국유사』 소재 자료를 중심으로」, 『口碑文學研究』9(서울: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p.31. ; 신연우,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분석적 이해」, 『韓國民俗學』33(서울: 한국민속학회, 2001), p.183),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응현하는 관음보살을 만남으로써 의상이 견인한 관음 상주 도량을 원효가 증명해준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김영태, 『신라불교 연구』(서울: 민족문화사, 1987), p.227.)

이에 비해 조신의 설화는 부연(敷衍)된 독립적 신앙 사례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세달사 장사의 관리인이었던 승려 조신이 태수 김흔공의 딸을 흠모하여 혼인하기를 관음보살에게 기도하다가,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김씨와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파란만장한 인고의 삶을 보낸 끝에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을 깨달아 마침내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추구하였다는 교훈적 이야기이다. 조신의 꿈속에 나타났던 김흔공의 딸은 낙산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암시되고 있다. 즉 조신의 이야기는 생로병사의 실존적 한계에 갇힌 인간의 실상을 깨우치는 선지식으로서 낙산 관음보살의 공능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부연된 기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일연은 이처럼 화엄 교학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낙산과 관련된 집단적 신앙기억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낙산 신앙의 창건자로 상정된 의상의 기사를 비롯하여 13세기 중반 고려 시대의 일화까지 아우르면서, 역사적 맥락과 신화적 모티프를 중첩하여 낙산이 담지하고 있는 신앙적 의미와 상징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낙산 이대성」 조의 서사를 통해 일연이 부각하고자 했던 것은 낙산에 상주하는 관음보살 구제 활동의 현재성이라고 할 것이다. 서사의 주인공들은 관음보살의 공능과 위신력을 증명하는 매개로 동원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연은 원의 침입과 압제로 피폐해진 당대의 현실 속에서 이 땅 민중들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구제자로서 관음보살의 현존성과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연의 인식은 『삼국유사』 전반에 걸쳐, 개인 및 국가 사회적 위난의 상황에서 드러난 관음보살의 영웅적 활동을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VI.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삼국유사』 탐상편에 수록된 「낙산 이대성」 조에서 관음보살 상주처로서 ‘낙산’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서사의 구조와 중심 모티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찰했다. 우선 「낙산 이대성」 조가 의상의 종교체험을 기반으로 이 땅을 본연으로 상주하는 관음보살의 존격을 건립하는 기원 신화로서의 성격을 담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낙산이 『화엄경』 「입법계품」의 관음영장인 보타락가산을 신라국토 내에 구현해 낸 신앙적 실재임을 확인했다. 지형과 위치의 유사성, 천룡팔부, 마니 보배 등의 「입법계품」에 나타나는 신화적 메타포들을 원용함으로써의 보타락가산에 상응하는 관음성지로서 낙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2.7일의 재계 끝에 관음보살 진신의 성현을 감득하는 의상에게는 선재동자의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다. 나아가 범일의 기사는 「입법계품」에서 보타락가산으로 비친해 온 정취보살의 모티프를 재현함으로써 관음 성지로서 낙산의 상징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사상적 측면에서 낙산은 의상이 선양했던 화엄법계관을 토대로 이 땅에 구현된 현실 정토로서의 의미가 있다. 세속적 공간인 동해변의 굴은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상입상즉하는 진성연기의 연화장세계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동북방의 변지를 불보살 상주의 지정각 세계로 건립함으로써 중고기 수미산 우주관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던 왕경 중심의 불국토관을 상승 극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상이 화엄 전교의 거점으로 삼았던 동북방의 주변성은 또 다른 차원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낙산 이대성」 조의 핵심 모티프는 관음보살의 진신과 화신의 관념이다. 『법화경』 등에서 관음보살의 구제 방편으로 제시된 현신(現身)의 메커니즘이 의상, 원효, 범일, 조신 등의 개별 일화들을 관통하며 시·공간을 초월해 제도 교화하는 관음보살의 공능을 부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국유사』의 찬자인 일연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그가 살았던 고려 하대의 피폐한 현실 속에서도 고난에 처한 민중들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관음보살 구제 활동의 역동성과 현존성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

- 『妙法蓮華經』(『大正藏』 4.262)
『首楞嚴經』(『大正藏』 19.945)
『華嚴經』40(『大正藏』 10.293)
『華嚴經』80(『大正藏』 10.279)
『華嚴經』60(『大정藏』 9.278)
『大唐西域記』(『大正藏』 51.2087)
『海東高僧傳』(『大正藏』 50.2065)
『三國遺事』(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浮石寺圓融國師碑』(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pc.go.kr>)
李穀, 『稼亭集』(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新增東國輿地勝覽』(한국고전종합DB : <http://db.itkc.or.kr>)
『高麗史』(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 단행본

- 김상현, 『신라화엄사상사 연구』, 서울: 민족사, 1991.
김상현, 『교감번역화엄경문답』, 서울: 도서출판씨아이알, 2013.
김영태, 『신라불교 연구』, 서울: 민족문화사, 1987.
이기백, 『韓國史新論』, 서울: 일조각, 1976.
전해주, 『화엄의 세계』, 서울: 민족사, 2011.
Armstrong, Karen. *A short history of myth*, Edinburgh ; New York : Canongate, 2006.
Chün-fang, Yü. *Kuan-Yin: The chinese Transformation of Avalokitesvar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Elide, Mirchea. *Mith and reality*, trans. by Willard T, Trask,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3.

_____, *The Sacred an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by Willard R. Trask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59), 이동하(역),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서울: 학민사, 1983.

3. 논문

- 고운기·황폐강, 「낙산 이대성(洛山二大聖)」조와 일연의 세계 인식, 질의, 『고전문학연구』8, 서울: 한국고전문학회, 1993, pp.28-49.
- 김기중, 「『삼국유사』 소재 불교설화의 ‘불·보살 現身’ 양상과 그 의미」, 『佛教學報』75,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pp.179-201.
- 김현선, 「불교 관음설화의 여성성과 중세적 성격 연구: 『삼국유사』 소재 자료를 중심으로」, 『口碑文學研究』9, 서울: 한국구비문학회, 1999, pp.21-50.
- 김현자,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서: 엘리야데와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종교학연구』20,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회, 2001, pp.41-67.
- 남동신, 「신라통일기의 정치와 사상: 의상 화엄사상의 역사적 이해」, 『역사와현실』20, 서울: 한국역사연구회, 1996, pp.39-65.
- 박미선, 「義湘과 元曉의 관음신앙 비교: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60, 서울: 한국고대사학회, 2010, pp.197-230.
- 배금란, 「『삼국유사』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 조의 원효 설화 분석」, 『한국종교학회』78-3, 서울: 한국종교학회, 2018, pp.235-262.
- _____, 「신라 관음신앙 연구: 관음성현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 신연우, 「『三國遺事』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분석적 이해」, 『韓國民俗學』33, 서울: 한국민속학회, 2001, pp.175-198.
-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낙산 이대성 관음·정취·조신」의 의미」, 『연세어문학』32, 서울: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0, pp.115-146.
- 윤중배, 「『三國遺事』 高僧說話에 나타난 民衆意識」, 『東洋古典研究』4, 서울: 동양고전학회, 1995, pp.3-30.
- 이한길, 「양양불교 설화 속에 보이는 원효와 의상의 역학관계」, 『구비문학연구』23, 서울: 한국구비문학회, 2006, pp.391-420.
- 전해주, 「의상화상 발원문 연구」, 『불교학보』29,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p.327

-353.

- 정환국, 「불교 영험서사의 전통과 『법화영험전』」, 『고전문학연구』 40, 서울: 한국고전문학회, 2011, pp.123-159.
- 조영록, 「羅·唐 동해 관음도량, 낙산과 보타산 - 동아시아 해양불교 교류의 역사 현장」, 『정토학연구』 17, 서울: 한국정토학회, 2012, pp.197-235.
- 조현우,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의 은유적 이해, 『한국고전연구』 11, 서울: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pp.186-211.
- 최연식, 「월출산의 관음신앙에 대한 고찰」, 『천태학연구』 10, 서울: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7, pp.208-226.
- 황금순, 「洛山說話와 高麗水月觀音圖, 普陀山觀音道場」 『불교학연구』 18 불교학연구회, 2007, pp.93-118.
- Honko, Lauri. "The Problem of Defining Myth." Scripta Instituti Donneriani Aboensis, 6, Åbo, Finland. 1972. pp.1-19.

<Abstract>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ive of *Naksan-idaeseong Gwaneum Jeongchwi Josin* of *Samguk-yusa*:

Examining the Symbolic Meaning of *Naksan*

Bae, Geum-Ran

This study examines the symbolic implications of *Naksan* (洛山) located in Yang-yang, Kangwon province, and known as the sacred place where *Quan-Yin Bodhisattva* (觀音菩薩) resides. By analyzing the narrative structures and key motifs of the article *Naksan-idaeseong Gwaneum Jeongchwi Josin*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of *Samguk-yusa* (三國遺事), it was confirmed that the article is a historical mythic narrative that assumes the *Quan-Yin Bodhisattva* as a deity existing naturally in this country. It revealed the origin of *Naksan* as pure land(淨土) based on the religious experience of the *Uuisang* (義湘). Furthermore, *Naksan* also was an embodiment of the *Potalaka* (補陀落迦) presented in *Ibbeobgyepum* (入法界品) of *Avatamsaka Sutra* (『華嚴經』), where *Seonjae* (善財) had met the saints, *Quan-Yin* and *Jeong-chwi* bodhisattva. The image of *Seonjae* who looking for *Quan-Yin* was projected on the performance of *Uuisang*, who had seen the true body of *Quan-Yin*. The story of *Beomil* reproduced the motif of the *Jeong-chwi* bodhisattva that flew to the *Potalaka* to meet *Seonjae*. It highlights the religious symbolic meaning of *Naksan* as a reenacted place of the *Potalaka*, as presented *Ibbeobgyepum*.

The secular world, coastal cave on the East Sea, was able to transform into *Naksan*, a sacred pure land where *Quan-Yin* Bodhisattva resides through *Hwaeombeobgyegwan* (華嚴法界觀). The 'Bulgukto-Gwan (佛國土觀)' was centered on the Seoul of *Silla* dynasty, according to the *Mt.Sumeru-universe*; and it was overcome by *Hwaeombeobgyegwan*. Thus, it became a prototype for building *Buddhaland* (佛國)/pure land (淨土), at any location in *Silla* territory. Through anecdotes related to *Uuisang*, *Wonhyo*, *Beomil*, and *Joshin*, the author, *Ilyeon* (一然), also emphasized the power of the *Quan-Yin* bodhisattva for rescuing people in his time.

• **Keywords**

Samguk-yusa, Quan-Yin Bodhisattva, Hwaombeobgyegwan, Uuisang, Wonhyo, Beomil.
Pure land.

논문접수일: 2020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20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12일.